



World publishing news

문승현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과장

● **에릭-엠마누엘 슈미트, 2004 독일도서상 수상**

프랑스 작가 에릭 엠마누엘 슈미트가 소설 《이브라힘 씨와 코란의 꽃》으로 2004년 독일도서상 ‘올해의 독자가 뽑은 인기작가상’을 수상했다. 에릭 엠마누엘에 이어 파올로 코엘류의 《11분》과 조앤 K. 롤링의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점에 비치된 독자카드와 인터넷, 잡지,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3만 명의 독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독일출판서적상협회와 라이프치히 메세가 올해 최고의 도서에 수여하는 2004 독일도서상은 작센주, 라이프치히시, 랜덤하우스 출판그룹, 게오르크 폰 홀츠브린크 출판그룹이 공동후원했다.

● **책과 친한 독일 청소년들**

독일 청소년연구소(Institut für Jugendforschung)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 청소년(13~22세 기준)이 독서와 도서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12명의 설문대상자 중 80퍼센트가 자신이 읽은 좋은 책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추천목록을 보면 판타지 소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청소년 2명 중 1명은 친척과 친구에게 책을 추천받아 독서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서점을 즐겨 이용한다.

●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뽑은 ‘2004년 봄 화제의 도서’**

아마존닷컴은 계절마다 ‘화제의 도서 20권’을 발표한다. 2004년 봄 ‘화제의 도서 20권’에는 한나 틴티의 창작집 《애니멀 크래커 Animal Crackers》, 잭 웅거의 《위킹 파이어 Working Fire》 등이 선정되었다.

아마존닷컴의 편집장 브래드 토마스는 “소설보다 비소설이 많이 선정되었으며, 비소설 가운데 회고록이 많다”고 선정목록의 특징을 전했다. 실제 직업경험을 바탕으로 한 회고록이 올 봄 독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빌 메이슨의 《보석 전문도둑의 고백 Confessions of a Master Jewel Thief》이라는 책도 출간되었다. 이 같은 책이 사랑받는 이유는 작년 토니 부데인의 《키친 컨피덴셜 Kitchen Confidential》이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 **런던도서전, 아동도서 거래 활발**

피버출판사가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매카트니가 공동집필한 아동도서의 저작권을 구입하며 런던도서전에 참가한 아동도서 출판사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번 런던도서전에서는 아동도서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아동도서 출판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2004년 런던도서전 아동관의 면적은 작년과 비교, 10퍼센트 더 커졌다.

아동도서 출판사 저작권담당 부서들은 볼로냐아동도서전 대신 런던도서전을 선호하고 있다. 피어슨의 한 담당자는 “런던도서전이 볼로냐아동도서전을 대체할 수 없지만, 런던에는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있고, 프랑크푸르트나 볼로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며 런던도서전의 이점을 밝혔다. 유럽에서 거리가 먼 미국과 호주의 출판사들도 현재 볼로냐아동도서전보다는 런던도서전을 선호하는 추세.



● **영국, 도서정가표시 제거에 반발**

영국의 도서정가표시 제거 계획이 많은 이들의 반대움직임에 난관을 겪고 있다. 영국의 유명작가와 에이전트들의 ‘도서정가표시 유지 캠페인’에 오테카즈 서점과 영국 아마존닷컴도 그들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오테카즈서점의 사장 제임스 헤니이지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도서정가표시 유지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표시를 제거한다면 슈퍼마켓을 비롯한 다른 유통매장의 도서가격이 마음대로 정해지며, 도서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이라는 얘기다. 영국 아마존닷컴 역시 도서정가표시가 제거된다면, 가격인상을 꺼리는 서적상들의 이익에만 부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 **러시아, 도서출판 증가**

러시아 도서회의소에 따르면, 작년 러시아에서는 8만290종의 도서가 출판되었고 7억2,030만 부의 도서가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출판종수는 15.1퍼센트, 발행부수는 21.8퍼센트 증가했다. 러시아 인구수를 감안하면 러시아 인구 1인당 5권에 해당하는 수치. 참고로 1999년에는 인구 1인당 3권이 발행됐다. 작년 러시아 도서출판 시장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인 1980년대 중반의 수준이라고 러시아 도서회의소는 밝혔다.

● **미국 서점 2003년 매출 증가**

미국서점협회가 미국 통계청에 보고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2003년 서점매출은 전년 대비 2.4퍼센트 증가한 1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증가세에도 미국 서점들은 다른 분야의 매출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다른 소매분야는 지난 12월 7.5퍼센트 매출이 증가했고, 2003년 전체로는 5.6퍼센트 증가했다. 이번 통계수치는 자영서점과 대형서점을 포함해 도서·잡지가 매출의 50퍼센트를 차지하는 업체들의 총매출을 포함했다.

● **불어를 지키려는 피보와 드뤼옹의 공방전**

불어를 지키려는 유명 프랑스인 2명이 불어 쇠퇴를 막는 최상의 방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이용 드 퀴튀르> 진행자이자 매년 불어 받아쓰기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개혁주의자 베르나르 피보와 전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무국장이었던 보수주의자 모리스 드뤼옹이 그 주인공이다.

모리스 드뤼옹은 “프랑스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언어를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과 조국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영광의 도구인 언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보수주의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맞선 베르나르 피보는 “언어는 계속해서 진화해야 하며 개방적이어야 하고 풍요로워져야 한다. 영어단어, 신조어, 슬랭 사용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불어의 수호자들은 새로운 단어를 장려하고 대담한 발명들을 환영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고 경멸한다면 불어가 드뤼옹 씨를 닮게 될 것”이라고 재치있게 일갈했다. 